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5년 2월	2015년 2월 교육학석사(전기전자통신)학위논문
교육학석사학위논문	<h1>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교육 조기 지도방안</h1>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교육 조기 지도방안	<h2>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h2>
손기봉	<h3>전기·전자·통신 교육전공</h3> <h1>손기봉</h1>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교육 조기 지도방안

Early teaching method for career education of
students in specialized high schools

2015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전기·전자·통신 교육전공

손 기 봉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교육 조기 지도방안

지도교수 조 금 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전기·전자·통신 교육전공)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전기·전자·통신 교육전공

손 기 봉

손기봉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 종 안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우 선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 금 배 인

2014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절 연구의 문제	3
제 3절 연구의 제한점	3
제 2장 본론	4
제 1절 이론적 배경	4
1. 진로지도	4
가. 진로교육의 의의	4
나. 진로교육의 목적	4
다. 진로발달 이론	5
(1) 구조론적 이론	5
(가) Roe의 욕구 이론	5
(나) 홀랜드 인성 이론	6
(2) 사회학적 이론	9
(3) 직업발달 이론	10
(가) Ginzberg의 진로 발달 이론	10
(나) Super의 진로 발달 이론	11
제 2절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	13
1. 특성화 고등학교의 공업 교육	13
2. 특성화 고등학교	13
3. 특성화 고등학교 현황	14
제 3장 연구방법	17
제 1절 연구대상	17
제 2절 연구의 도구	18
제 3절 자료 수집 및 처리	18

제 4장 연구의 결과 및 해석	19
제 1절 공업 고등학교의 진로 선택 동기 및 만족도..	19
1. 공업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한 시기	19
2. 공업 고등학교 진학 결정 요인	20
3. 공업 고등학교 진학 시 고등학교의 이해	20
4. 만족도	22
가. 특성화 고등학교의 만족도	22
나.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에 만족하는 이유	23
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외부적 시선..	23
제 2절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 후의 진로...	25
1.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	25
2. 특성화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 선택 영향	26
제 3절 특성화 고등학교의 진로 교육 형태	28
1.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준비	28
2.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의 진로 상황	29
제 5장 분석	32
제 6장 결론	35
참고문헌	38
설문지	40

표 목 차

<표 II-1> 총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의 비율.....	14
<표 II-2>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수.....	14
<표 II-3>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자 현황.....	16
<표 III-1> 설문 조사 대상 학생수 : 학교별, 학년별.....	17
<표 III-2> 설문지 구성 내용.....	18
<표 IV-1>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한 시기.....	19
<표 IV-2>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 결정 요인.....	20
<표 IV-3>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 시 고등학교의 이해.....	21
<표 IV-4>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만족도.....	22
<표 IV-5>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에 만족하는 이유.....	23
<표 IV-6>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외 부적 시선.....	24
<표 IV-7>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	25
<표 IV-8> 특성화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 선택 시 결정 요인.....	26
<표 IV-9>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고민 정도.....	27
<표 IV-10>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준비.....	28
<표 IV-11>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로지도의 만족도..	29
<표 IV-12>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의 진로 분야.....	30
<표 IV-13>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취업반 진학반 분리 운영.....	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과 진로 지도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 교육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문제를 총 4분류로 나누고,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의 진학동기, 만족도, 진로성향, 학교 진로 형태로 배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문제는 경상도 지역 소재 1개교, 광주광역시 소재 1개교, 총 1학년 312명, 2학년 316명, 총 6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앞둔 중학생들은 주위와의 상의가 아닌 본인의 의지로 진학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현 사회의 ‘취업난’의 영향이 고등학교까지 내려와 학생들의 진로가 ‘취업’으로 획일화 되고 있다. 셋째, 특성화 고등학교를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은 인문계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전문 지식 수준이 늘고 있지만, 아직 사회의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는 ‘취업’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한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 지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취업 최우선의 획일적인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로지도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특성화 고등학교는 진학반과 취업반으로 분리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취업반으로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진학반으로 편성하여 그에 맞는 진로 지도가 필요하다

둘째, 특성화 고등학교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 장인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기관임을 알려 외부적인 시선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전문적인 기술습득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생 본인의 적성에 맞게 진학한 곳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셋째, 산업체나, 대학과의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진학을 위한 학생은 대학과의 연계 수업을 통해 미리 대학의 수업을 받아들여 대학으로 진학 시 다른 학생들과의 수업 진도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산업체에 취업을 나가는 학생들에게는 산업체에서 학생들을 ‘실습이나 온 학생’이라는 시선이 아닌 해당 산업체의 전문 기능인으로서의 인정과 함께 그에 맞는 처우를 해주어야 한다.

ABSTRACT

Early teaching method for career education of students in specialized high schools

Son Ki-bong

Advisor : Prof. Cho Geumbae Ph.D.

Major in Electricity Electron Communica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ndustrial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recognition on career and the status of career instruction, and analyze the problems of industrial specialized high schools. In addition, to resolve the problems of industrial specialized high schools, this study suggested an appropriate career instruction method for student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divided the research problems into 4 types, which were assigned to motivation of entrance, satisfaction, career tendency, and school career in relation to industrial specialized high school. These research problems were analyzed targeting 312 first-graders and 316 second-graders, totally 628, at one school in Gyeongsang-do and one school in Gwangju, by using a survey method.

The study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iddle school students entering specialized high schools are likely to rely on their own volition, not on consultations with people around. Second, the 'unemployment crisis' of the present society influences even high schools, leading the purpose of students' career to only 'employment'. Third, eyes of people around on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are worse than those on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Although presently governments are constantly investing times and efforts in activating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Meister high schools', and students' professional knowledge is growing, recognition of society is still low.

Fourth, industrial specialized high schools educate students considering ‘employment’ the highest priority. Although career instruction according to students’ talents and aptitudes is necessary, uniform career instruction considering employment the best priority is being practiced.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career instruction measures as below.

First, specialized high schools should divide their class into entrance class and employment class. Because students desire different fields, those who desire employment should be assigned to employment class and those who desire entrance should be assigned to entrance class, and career instruction needs to be provided accordingly.

Second, specialized high schools should notify society of the fact that they cultivate and produce meisters needed by industries, and improve external eyes. It is needed to improve high school students’ professional knowledge acquisition through continuous national support, and foster recognition through constant promotions that specialized high schools are places that students selected themselves according to their aptitudes.

Third, collaborative relationships with industries or universities are necessary. For students having a purpose of entrance, it is needed to let them receive university classes through those linked to universities and thereby help them adjust to university classes when they enter, and for students having a purpose of being employed in industries, it is needed to look at them as professionals, not ‘students practicing in industries’, and properly treat them.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최근 대한민국 청년들의 심각한 취업난이 장기화 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4년 청년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청년층의 고용률이 2004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실업률은 큰 변동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취업난의 심각성이 장기화되자 이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정치권에서 잇따라 취업난해소를 공약으로 거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대학진학률을 2004년 이후 2014년까지 70~80%에 육박한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청년들의 대학 등록금의 대출이나 부모님 등 지인에게 조달 받는 비율이 약 80%에 달한다. 비싼 등록금의 상환을 위해서는 청년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난이 장기화됨에 따라 등록금의 상환 또한 장기화되고 있다. 이는 서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청년의 신용불량자를 양성하고 2차적인 경제 피해를 유발한다.

이러한 대학진학의 경제적 문제와 장기적 취업난을 이유로, 정부에서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정부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실행하고, 취업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강화하였다. 1997년에 신설된 「초·중등교육법」의 특성화학교 조항에 따라,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명명하였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다시 직업교육 분야와 대한교육 분야로 나뉜다. 이 중 전자를 흔히 특성화고등학교로 후자를 대한학교로 부른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교 등이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의 목적을 직업전문 인재 양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회의 급변에 발맞추어 일부 산업에서는, 기존의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

보다 특화되고 심화된 교육과정을 요구하였다. 기존의 전문계 고등학교는 학교 수와 재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취업보다는 진학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전문적 기술영재를 양성하기 위한 발전적인 전문계 고등학교의 선진 모형(model)으로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20개 내외의 학교를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소질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유망 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최고의 교육으로 젊은 기술명장(meister)을 양성하는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정의하였다.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의 육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인하여, 최근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무한 경쟁과 정보화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기술인의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사회의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였다면, 현재의 특성화 고등학교는 산업현장의 인재와 함께 전문적인 학문 지식을 가진 기술인을 양성 하고 있다. 따라서 현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취업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을 가질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학생들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알맞은 진로를 권해야 된다.

그러나 현 특성화 고등학교로의 진학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질, 적성, 능력, 흥미, 포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학교가 아니라, 단순히 학업성적의 부진으로 인한 기계적인 선택이어서 불만과 부적응 속에서 열등감을 갖고 수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¹⁾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결정이 아닌 학벌위주의 사회와 지나친 교육열이 계속해서 높은 상급 학교로의 진학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직업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출연으로 인하여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가 급감하게 되었다.

1) 김충기, 『미래사회와 진로선택』, 서울:배영사, 1993

본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특성과 고등학교의 공업계 학생들을 위한 진로와 직업교육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특성화 고등학교의 공업계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제2절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의 공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된 동기, 목적 등을 알아보고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진로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진로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가. 학생들의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 배경은 무엇인가?
- 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의 인식은 어떤가?
- 다.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로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 라.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교육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제3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 째,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하고 있는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둘 째, 본 연구는 설문지법에 의해 수행되었기 때문에 설문지법이 가지는 연구방법상의 제한점을 지닌다.

셋 째, 본 연구의 설문 대상자는 3학년의 대다수가 취업 중인 특성화 고등학교의 특성으로 인해 1,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제2장 본 론

제1절 이론적 배경

1. 진로지도

가. 진로교육의 의의

진로교육이란, '개인이 자기의 적성, 흥미, 능력에 알맞은 일을 자각, 탐색, 준비, 유지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취학 전 교육부터 시작하여 평생 동안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공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학습하는 경험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진로교육은 개인의 진로선택, 적응, 발달에 초점을 둔 교육으로, 각 개인이 자기 자신과 일의 세계를 인식 및 탐색하여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선택하고, 선택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취학 전부터 시작하여 평생 동안 학교, 가정, 사회에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도와주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나. 진로교육의 목적

진로교육의 본질은 개인에게 일이 가능하고(possible), 의미 있고(meaningful), 만족스럽게(satisfying)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진로교육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진로교육은 일에 주된 관심을 둔 교육이다.

즉, 진로교육이란 교육과 일의 세계를 연관시키기 위한(to relate education to the world of work) 것으로 개인이 일생 동안 하게 되는 일을 준비하도록 하는 교육(education as preparation for work)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둘째, 진로교육은 사회에 있는 다양한 직업 또는 직업가치들에 친숙해지도록 도

와주고, 각 개인에게 의미 있는 직업 또는 직업가치를 선택하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즉, 진로교육은 개인에게 어떤 유일한 표준형태의 직업이나 직업가치를 부여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로교육은 상이한 직업 또는 직업가치들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데 따르는 장단점을 이해시켜 각 개인으로 하여금 직업 또는 직업가치들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하도록 도와주려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진로교육은 자기 자신의 직업가치를 수행하도록 개인을 돕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직업가치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을 하기를 원하도록 해야 하고, 그 일에 필요한 기술 또한 획득하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한 연후에 자신에게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일을 발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일의 성질은 변화하기 때문에 평생을 통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즉, 진로교육은 취학 전에 시작되어 평생 동안 실시되어야 하며,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상호 긴밀한 연계 속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이경호, 2013)

다. 진로발달 이론

(1) 구조론적 이론

(가) Roe의 욕구 이론

Roe는 개개인이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고,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보았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직업은 어렸을 때 부모와 자신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중등교육을 받기 이전인 12세 이전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준 양육방식이 자녀의 진로선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성격과 태도, 가치관 등이 생기고 이에 따라 장래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Roe는 매슬로우의 욕구의 위계 이론을 상위에 두어야 직업발달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녀가 어렸을 때 직업선택에 관련된 경험을 5가지로 수립하였다.

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특성 발달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② 유전적인 발달은 본인의 유일하고 특수한 경험에 영향을 받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사회의 문화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③ 흥미나 태도와 같은 특성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발달유형이 결정된다.

④ 심리적 에너지는 흥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⑤ 이러한 욕구와 만족은 성취동기의 유발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Roe가 보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따른 자녀의 직업 선택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① 따뜻한 부모-자녀의 관계에서 성장한 사람

어렸을 때부터 자녀가 필요한 물질이나 욕구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욕구를 만족시키는 욕구충족 방식을 배우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 지향적인 성격을 형성하도록 하고 후에 자녀가 자라면서 직업선택에 반영된다. 그에 따라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잦은 직업(서비스, 문화, 예술 등)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② 차가운 부모-자녀의 관계에서 성장한 사람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은 본인의 욕구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보다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그에 따라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잦지 않은 직업(과학직, 기술직 등)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나) 홀랜드 인성이론

홀랜드(Holland)는 진로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문화를 경험하면서 만들어지는 성격이 후에 직업선택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다.

홀랜드의 기본가정에 따르면 홀랜드는 사람들의 성격은 6가지 유형 중의 하나로 보았고, 그에 따라 직업 환경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직업 환경에 근무하는 사람은 성격에 따라 나뉜다고 보았다. 또, 홀랜드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자신의 태도와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찾고 일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홀랜드의 6가지 성격 유형과 이에 따른 직업 환경은 다음과 같다.

① 현실적 환경(R)

기계, 도구, 동물에 관한 체계적인 조작활동을 좋아하지만 사회성이 부족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직업은 기술자이다. 현실형이 주도하는 이 작업환경은 각종 도구를 이용해서 기계 등을 다루는 실무적인 일이다. 농부, 소방수, 파일럿, 경찰관, 목수, 자동차 및 전기 기술자, 트럭 운전자 등이 적합하다. (실제적, 실용적)

② 탐구적 환경(I)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조직적이고 정확하지만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직업은 과학자이다.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지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 화학자, 수학자, 기상학자, 생물학자, 치과 의사, 내과 의사, 건축가, 측량 기사, 전기 기술자 등이 적합하다. (과학적, 추상적)

③ 예술적 환경(A)

표현이 풍부하고 독창적이며 비순응적이며, 규범성이 부족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직업은 음악가와 미술가이다. 예술적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작업환경으로, 자기표현에 능하며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무용가, 편집자, 예술 계통의 교사, 의상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배우, 방송인, 코미디언, 작곡가, 연주자 등이 적합하다. (심미적, 창조적)

④ 사회적 환경(S)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즐긴다. 반면에 도구와 기계를 포함하는 질서정연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싫어하며, 기계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친절하고 인정 많고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병원, 학교, 상담소에는 사회형의 사람들이 다른 유형보다 더 많이 있다. 교직, 카운슬러, 간호사 등이 적합하다. (후원적, 양육적)

⑤ 기업적 환경(E)

조직 목표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조직하는 활동을 즐긴다. 그러나 분석적, 과학적 능력이 부족하다. 야망 있고, 사교적이며 활동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 정치가, 판사, 변호사, 행정 담당관, 세일즈맨, 은행장, 호텔매니저, 부동산 중개업자, 학교장 등이 적합하다. (사교적, 활동적)

⑥ 보수적 환경(C)

자료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심미적 활동은 피한다. 숫자, 기록, 기계와 관련된 규칙적이며 순서에 따라 임무를 처리하는 분야이다. 은행원, 비서, 사서, 우체국 직원, 법정 관계자 등이 적합하다. (논리적, 규범적)

홀랜드(Holland) 육각형 모델과 그에 관한 직업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일관성

육각형 모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성격의 일관성 정도를 규정하는 것인데 6개 성격 유형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RI형은 RA형보다 더 일관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일관성 있는 직업성격 유형을 보이는 사람은 대체로 일관성 있고 분명한 직업적 목표를 가진다.

② 일치성

개인의 성격유형과 개인이 몸담고 있거나 소속되고자 하는 환경의 유형이 서로 부합하는 정도를 말한다. 사람은 자신의 성격 유형과 비슷하거나 부합하는 환경유형에서 일할 때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③ 정체성

정체성은 6가지 유형과 환경의 조직화를 보충해 주는 요인이다. 개인에게 있어서

의 정체성이란 개인의 목표, 흥미, 재능에 관한 명확하고, 견고한 청사진을 말하고, 직업 환경에서의 정체성이란 조직의 투명성, 안정성, 목표, 일, 보상 등을 통합한 개념이다.

④ 차별성(변별성)

성격의 차별성을 말하는 것으로 6개의 성격유형 중 특정 성격 유형의 점수가 다른 성격 유형의 점수보다 높으면 변별성이 높고, 이들의 점수가 대부분 비슷하면 변별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변별성이 높은 사람은 뚜렷한 관심을 가지는 특정 분야가 존재한다. 반면에 변별성이 낮은 사람은 낮은 흥미를 보이는 분야이든 높은 흥미를 보이는 분야이든 특정 분야에 두드러진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⑤ 계층성

유형들 간의 거리는 그것들 간의 이론적인 관계에 반비례한다. 예를 들면 어느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의 성격이 현실적 유형에 가까울수록 사회적 유형 성격의 특징은 적어지고, 그 분야에서의 직업적 성공도 또한 낮아짐을 의미한다.

(2) 사회학적 이론

직업 선택이나 진로 선택 시 사회학적인 이론은 개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즉 통제 밖의 외적 요인들이 개인의 진로나 직업 선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즉, 개인이 진로 결정에 있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나, 개인의 통제 밖에 있는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직업 선택이나 진로 선택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홀링스헤드(Hollingshead)는 사회 계층 배경이 직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줬는데, 많은 하위 계층 청소년들의 직업이나 진로 목표가 그들이 속해 있는 직업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부모의 교육 정도나 직업 수준이 자녀의 학교 교육, 자녀의 직업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입증했다.

개인의 직업 획득 과정에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개인에게 영향력이 있는 부모,

교사, 친구 등과의 상호 작용이 중요한 요인을 작용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 모형은 경험적인 여러 연구의 지지를 받았으며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대체로 그 적용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었다(임용수, 1992).

(3) 직업발달이론

직업발달이론은 홀랜드의 인성이론과 사회학적이론을 모두 고려하여 전 생애에 발달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이 이론은 전 생애에 걸쳐 발달하기에 개인의 직업 진로선택과 그에 맞는 진로지도도 생애 전 단계에 걸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 긴즈버그(Ginzberg)의 진로 발달 이론

긴즈버그(Ginzberg)는 진로 발달 이론에서 직업선택이론을 제시 했는데 “직업선택은 하나의 발달과정이다. 그것은 단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일련의 결정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개인이 발달하는 것처럼 직업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 기능도 단계를 거치며 발달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발달단계 초기에 이루어지는 선택과정은 개인의 흥미, 능력, 가치관에 좌우되지만, 나중에는 이 용인들과 외부적인 조건이 함께 타협됨으로서 직업선택이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긴즈버그는 직업발달 단계를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환상기(fantasy period)단계는 6세에서 11세까지가 이 단계에 속하는 데, 이 단계에 속하는 아동은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하면 된다는 식의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신의 능력,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려 한다.

잠정기(tentative period)단계는 11세에서 18세까지 해당하는 단계로 이 잠정기에 속하는 자는, 직업선택의 문제에서 현실상황을 별로 고려하지 않음으로 이 시기의 특징은 잠정적이라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다시 세분화하여 네 가지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흥미단계에서는 자신의 흥미나 취에 따라 직업을 선택

하려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로 능력단계에서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자 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로 가치단계는 본인이 선택한 직업이 자신의 가치관과 부합하는지 평가해보는 단계이고, 네 번째로 전환단계는 직업선택의 판단이 주관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외부요인을 고려하게 되어 현재의 결정이 미래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하는 단계이다.

현실기(realistic period)는 18세부터 성인초기까지 해당되는 단계로 이 시기에는 현실적인 외부요인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다시 세분화하여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탐색 단계는 흥미, 능력, 가치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업적 대안들을 탐색해보는 단계이다. 두 번째 구체화 단계는 자신의 직업목표를 구체화하고, 내 외적요인을 고려하여 특정 직업분야에 몰두하게 된다. 세 번째 특수화단계는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전문화된 의사 결정을 하는 단계이다

(나) 수퍼(Super)의 진로 발달 이론

수퍼(Super)은 긴즈버그(Ginzberg) 이론의 미흡한 부분을 비판하고 당시의 직업 선택 및 직업발달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분석, 종합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발전된 이론을 정립하였다. 수퍼의 발달이론에서 직업행동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자아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인간은 자아 이미지와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한다. 즉,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느끼고 생각하던 바를 살릴 수 있는 직업을 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을 매우 활달하고 적극적이며, 능력이 충분히 있어서 어떤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던 사람은 그러한 자신의 이미지에 일치하는 직업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수퍼의 이론에서 개인의 자아개념 발달단계를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 성장기(growth stage)는 0세인 출생부터 14세까지의 시기로서 자아개

념이 생기고, 직업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초기에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나 점차 흥미와 능력을 중요시하게 된다. 이 단계는 환상기, 흥미기 및 능력기의 세 가지 하위단계로 구분된다. 환상기(fantasy substage)는 자신의 욕구에 의해 선택을 하게되고, 흥미기(interest substage)는 개인의 흥미나 취향에 의해 선택을 하게 된다. 능력기(capacity substage)는 직업을 선택할 때 능력을 중시한다.

두 번째로 탐색기(exploration stage)는 15세부터 24세까지의 시기로서 학교나 여가활동 시간제 일 등을 통해 직업을 선택하는 시기이다. 탐색기는 잠정기, 전환기 및 시행기의 세 가지 하위단계로 구분된다. 잠정기(tentative substage)는 자신의 욕구, 능력, 가치, 취업 기회 등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전환기(transition substage)는 직업세계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면서 자아개념을 확립하려고 하며 현실적 요인을 중시하고, 시행기(trial substage)는 본인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을 선택하여 종사하게 되는 단계이다.

세 번째로 확립기(establishment stage)는 25세에서 44세까지의 시기로서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해서 종사하고 생활의 터전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시기이다.

네 번째로 유지기(maintenance stage)는 45세에서 64세까지의 시기로서 확고해진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이다.

다섯 번째로 쇠퇴기는 65세 이상의 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정신적, 신체적인 힘이 약해짐에 따라 직업전선에서 은퇴하여 다른 활동을 찾게 되는 시기이다.

제2절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

1. 특성화 고등학교의 공업 교육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은 공업 교육으로 불린다. 공업 교육이란 “공업 분야에서 직업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습득시키는 교육”을 말한다.²⁾ 이는 직업교육의 한 영역으로 학교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고, 기업 내 교육 또는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직업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공업전문대학, 공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모두가 그 수준은 다르나 장차 공업 분야에 진출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시킨다는 점에서 모두 공업 교육에 해당한다.

공업 교육은 단순한 기술 교육을 의미하기보다는 인간 능력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업 교육의 과제는 객관적 인식의 능력을 개발하고 이 능력을 행동화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으로 보아 공업 교육이란 정신적, 육체적 삶을 위한 직업 교육의 한 영역이며 공업 분야에 취업하기 위한 기술교육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 관한 지침은 현행 교육과정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교과(군)의 이수단위 180단위 중 보통교과 필수이수단위는 72단위 이상으로 편성하며 전문교과의 과목은 80단위 이상으로 편성 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교과의 각 과목에 대한 이수단위는 현행과 같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되 외국어와 국제에 관한 교과의 각 과목별 이수단위는 현행 8단위 이하로 배당하던 것을 5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할 수 있도록 하여 집중 이수를 강조 하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보통교과의 이수로 간주 할 수 있다.

2)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 대백과 사전 (도서출판 하우, 1998)

3. 특성화 고등학교의 현황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가지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으로 분류되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010. 6. 29)

특성화 고등학교는 2010년도까지 직업고등학교로 분류되었다가 2011년도부터 특성화 고등학교로 분류되었다.

<표 II-1> 총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의 비율

연도	총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비율
2011	2,282	499	21.86%
2012	2,303	499	21.66%
2013	2,322	494	21.27%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특성화 고등학교의 종류는 공업, 상업, 농업 등 각 계열이 나뉘어서 어느 계열의 고등학교가 변동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전체적인 특성화고등학교는 전체 고등학교의 개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변동이 없거나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수의 현황이다.

<표 II-2>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수

연도	총 고등학교 학생 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	비율
2011	1,943,798	340,227	17.50%
2012	1,920,087	330,797	17.22%
2013	1,893,303	320,374	16.92%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수도 고등학교 수와 비슷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과거 한국 산업현장에 전문 기술인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고도화 성장에 따른 고학력이 요구되고 있고, 계속되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수도 감소하였다. 사회가 학력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현장에 취업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시 활성화 시키고자 정부의 지속적인 시설, 설비를 투자하고 있지만, 사회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들을 최종학력이 고등학교라는 이유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쌓여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업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의 집합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을 포기하게 되자 정부는 7차 교육과정부터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원활한 대학 진학을 돕고자 직업탐구영역을 신설 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노력 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직업탐구영역이 신설되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진학이 쉬워지자 취업률은 서서히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이는 특성화고의 정체성과 성격에 관한 다수의 논의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사회에서는 고학력자들을 원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도 대학에 진학하는 등 학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취업률이 다소 낮았다. 그러나 2014년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진학률을 앞섰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특성화 고등학교의 지원과 산업체와의 연계를 추진하였기 때문만 아니라, 현재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고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해 취업을 나가는 방법을 택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등장으로 전문 기술 장인 육성을 목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취업률이 진학률을 앞선

것에 도움을 줬다.

<표 II-4>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자 현황

연도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진학자	진학률	입대자	기타
2004	182,836	60,062	32.90%	113,944	62.30%	354	8,475
2005	170,259	47,227	27.70%	115,164	67.60%	393	7,475
2006	162,600	42,151	25.90%	111,601	68.60%	402	8,446
2007	158,708	32,075	20.20%	113,487	71.50%	435	12,711
2008	158,408	30,036	19.00%	115,407	72.90%	925	12,040
2009	151,410	25,297	16.70%	111,348	73.50%	962	13,803
2010	156,069	29,916	19.20%	111,041	71.10%	865	14,247
2011	137,102	35,228	25.90%	84,288	61.50%	1,317	16,269
2012	128,969	47,944	37.50%	65,467	50.80%	1,052	14,506
2013	122,882	49,937	40.90%	51,083	41.60%	737	21,125
2014	125,017	54,953	44.20%	48,321	38.70%	597	21,146

자료 : 01~14년, KEDI 교육통계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의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와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의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2곳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3학년은 대다수의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는 등 부재중이라 제외되었다.

설문 대상자 수는 광주광역시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1학년 62명, 2학년 61명과 경상북도 구미시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1학년 281명, 2학년 277명, 총 68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배포 및 사용 질문지 회수 현황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설문 조사 대상 학생수 : 학교별, 학년별

구 분 학교명	1학년			2학년		
	배 부	회수 수	유효 수	배 부	회수 수	유효 수
광주공고	62	61	58	61	57	52
구미전자공고	281	272	254	277	270	264
계	343	333	312	338	327	316
유효율	90.9%			93.4%		
총계 및 유효율	배부 : 681 회수 수 : 660 유효 수 : 628 유효율 : 92.2%					

본 설문지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협조를 통해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660를 회수하였고, 이 중에서 처리 가능한 628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제2절 연구의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 연구자들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진학 동기, 만족도, 진로 성향 등으로 나누었고, 문항은 진학 동기 1~5번, 만족도 6~9번, 진로 성향 10~25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2> 설문지 구성 내용

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진학 동기	5	1~5
만족도	4	6~9
진로성향	11	10~20
학교 진로 형태	5	21~25
계	25	

제3절 자료 수집 및 처리

자료의 수집은 공업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협조에 의해 실시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백분율(%)을 통해 산출하였다.

제4장 연구의 결과 및 해석

제1절 특성화 고등학교의 진로 선택 동기 및 만족도

1.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한 시기

설문에 응한 학생들의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한 시기는 다음과 같다.

< 표 IV-1>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한 시기

구분	1학년		2학년		계	
	M	%	M	%	M	%
중학교1학년	17	5.5%	20	6.3%	37	5.8%
중학교2학년	97	31.0%	104	32.9%	201	32.0%
중학교3학년	198	63.5%	192	60.8%	390	62.2%
계	312	100%	316	100%	628	100%

<표 III-1>의 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공업 고등학교 진학을 결심하게 된 시기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이 62.2%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중학교 2학년’ 32.0%, ‘중학교 1학년’ 5.8%의 순으로 나타났다. 1학년과 2학년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가 나지만 응답 순서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중학교 1학년 때는 고등학교 진학에 별다른 관심이 두지 않다가 2학년 3학년으로 진학하면서 고등학교에 진학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한 것을 볼 수 있다.

2. 공업 고등학교 진학 결정 요인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결정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 표 IV-2>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 결정 요인

구분	1학년		2학년		계	
	M	%	M	%	M	%
스스로 결정	162	51.9%	174	55.0%	336	53.5%
학교 선생님	78	25.0%	81	25.6%	159	25.3%
부모님	57	18.2%	54	17.0%	111	17.6%
친구 선배	15	4.9%	7	2.4%	22	3.5%
계	312	100%	316	100%	628	100%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하게 된 요인으로는 ‘스스로 결정’이 53.5%로 가장 높은 반응으로 보였고, ‘학교 선생님’이 25.3%, ‘부모님’이 17.6%, ‘친구 선배’가 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고등학교로의 진로 결정을 할 때에는 스스로가 자신의 성적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놓일 수 있는 고등학교 진학에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진로지도보다는 스스로가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다.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진로지도 후 그에 맞는 진학을 하는 체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3.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 시 고등학교의 이해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때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다음과 같다.

< 표 IV-3>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 시 고등학교의 이해

구분	1학년		2학년		계	
	M	%	M	%	M	%
잘 알고 지원	5	1.6%	4	1.3%	9	1.4%
대충 알고 지원	150	48.1%	162	51.3%	312	49.7%
잘 알지 못하고 지원	137	43.9%	139	44.0%	276	43.9%
전혀 모르고 지원	20	6.4%	11	3.5%	31	4.9%
계	312	100%	316	100%	628	100%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 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의 설문에서는 ‘대충 알고 지원’ 49.7%로 가장 높았고, ‘잘 알지 못하고 지원’ 43.9%, ‘전혀 모르고 지원’ 4.9%, ‘잘 알고 지원’ 1.4% 순으로 나타났다.

‘대충 알고 지원’과 ‘잘 알지 못하고 지원’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는데, 응답자 중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인문계 수업 말고 다른 것을 배운다,’ ‘실습을 한다.’라는 등의 단편적인 것들만 인지하고 있고, 현장 산업체 견학이나, 2+1체제 등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만족도

가. 특성화 고등학교의 만족도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 했을 때의 만족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설문은 다음과 같다.

< 표 IV-4>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만족도

구분	1학년		2학년		계	
	M	%	M	%	M	%
매우 높다	21	6.7%	17	5.4%	38	6.1%
대체로 높다	81	26.0%	76	24.1%	157	25.0%
그저 그렇다	128	41.0%	112	35.4%	240	38.2%
약간 낮다	74	23.7%	93	29.4%	167	26.6%
매우 낮다	8	2.6%	18	5.7%	26	4.1%
계	312	100%	316	100%	628	100%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만족도는 학교에 대한 만족이 ‘그저 그렇다’ 38.2%, ‘약간 낮다’ 26.6%, ‘대체로 높다’ 25.0%, ‘매우 높다’ 6.1%, ‘매우 낮다’ 4.1%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에서 1학년과 2학년이 차이를 보였는데,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넘어가면서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시절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을 선택하게 될 때 스스로가 특성화 고등학교의 진학을 결정하면서, 1학년 때는 본인의 결정에 진학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2학년으로 진학 할 때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에 만족하는 이유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에 만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표 IV-5>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에 만족하는 이유

구분	1학년		2학년		계	
	M	%	M	%	M	%
보충 수업을 안해서	45	14.4%	3	0.9%	48	7.6%
취업 전망이 좋아서	175	56.1%	196	62.0%	371	59.1%
자신의 적성에 맞아서	84	26.9%	98	31.0%	182	29.0%
대학진학 때문에	8	2.6%	19	6.0%	27	4.3%
계	312	100%	316	100%	628	100%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에 만족하는 이유는 ‘취업 전망이 좋아서’ 59.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자신의 적성에 맞아서’ 29.0%, ‘보충 수업을 안해서’ 7.6%, ‘대학진학 때문에’ 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전망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요즘 청년실업과 관련한 문제가 학생들에게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였다. 즉, 학생들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진학을 하진 않았지만, 인문계 고등학교 보다는 막연하게 취업이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외부적 시선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외부적 시선은 다음과 같다.

< 표 IV-6 >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외부적 시선

구분	1학년		2학년		계	
	M	%	M	%	M	%
기능인으로 높이 인정	102	32.7%	165	52.2%	267	42.5%
일반계 고등학교 정도로 인정	20	6.4%	12	3.8%	32	5.1%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	128	41.0%	102	32.3%	230	36.6%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56	17.9%	35	11.1%	91	14.5%
잘 모르겠다	6	1.9%	2	0.6%	8	1.3%
계	312	100%	316	100%	628	100%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외부적 시선은 ‘기능인으로 높이 인정’ 42.5%,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 36.6%,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14.5%, ‘일반계 고등학교 정도로 인정’ 5.1%, ‘잘 모르겠다’ 1.3%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성화 고등학교 1학년은 외부적 시선이 좋게 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반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외부적 시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제2절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 후의 진로

1.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설문은 다음과 같이 나왔다.

< 표 IV-7>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

구분	1학년		2학년		계	
	M	%	M	%	M	%
취업	245	78.5%	266	84.2%	511	81.4%
대학진학	58	18.6%	42	13.3%	100	15.9%
개인 사업	2	0.6%	1	0.3%	3	0.5%
가사 도움	7	2.2%	7	2.2%	14	2.2%
계	312	100%	316	100%	628	100%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설문에서는 ‘취업’ 81.4%, ‘대학진학’ 15.9%, ‘가사 도움’ 2.2%, ‘개인 사업’ 0.5%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특성상 ‘취업’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다수 차지하고 있었고, 좀 더 심도 있는 학업을 위해 ‘대학진학’을 선택한 학생이 그 뒤를 이었다. ‘취업’을 선택한 학생들은 선호 업종을 ‘전공 관련 업종’에 82.2%의 비율로 선택하였고, ‘공무원’을 9.1%의 비율로 선택하였다. ‘대학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선택한 목적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가 67.2%의 비율을 나타냈고,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가 15.3%의 비율을 나타냈다.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의 결과 중 취업에 대한 선호도가 학년에 따라

일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대학 진학을 하더라도 취업이 불확실한 현 사회의 모습으로 인해 고등학교에서 지원하는 안정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 특성화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 선택 영향

특성화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 선택 영향에 대한 설문은 다음과 같다.

< 표 IV-8 > 특성화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 선택 시 결정 요인

구분	1학년		2학년		계	
	M	%	M	%	M	%
본인 스스로	79	25.3%	71	22.5%	150	23.9%
학교 선생님	98	31.4%	116	36.7%	214	34.1%
부모 형제	102	32.7%	125	39.6%	227	36.1%
친구 선배	33	10.6%	4	1.3%	37	5.9%
계	312	100%	316	100%	628	100%

특성화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 선택 시 결정 요인으로는 ‘부모 형제’ 36.1%, ‘학교 선생님’ 34.1%, ‘본인 스스로’ 23.9, ‘친구 선배’ 5.9%의 순서로 나타났다.

‘부모 형제’가 높은 이유는 가정의 요인이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다음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고민하는지에 대한 설문이다.

< 표 IV-9>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고민 정도

구분	1학년		2학년		계	
	M	%	M	%	M	%
매우 고민한다	9	2.9%	36	11.4%	45	7.2%
고민하는 편이다.	52	16.7%	185	58.5%	237	37.7%
보통이다	162	51.9%	85	26.9%	247	39.3%
고민하지 않는 편이다	87	27.9%	7	2.2%	94	15.0%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	2	0.6%	3	0.9%	5	0.8%
계	312	100%	316	100%	628	100%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에 대한 생각 정도는 1학년은 진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지만, 2학년은 높은 비율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나왔다.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선생님’, ‘부모 형제’에게 진로 선택시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2학년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점을 보아, 2학년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진로지도의 교육을 받거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 ‘부모 형제’가 진로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3절 특성화 고등학교의 진로 교육 형태

1.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준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어느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은 다음과 같다.

< 표 IV-10 >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준비

구분	1학년		2학년		계	
	M	%	M	%	M	%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12	3.8%	3	0.9%	15	2.4%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	79	25.3%	10	3.2%	89	14.2%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	112	35.9%	103	32.6%	215	34.2%
준비를 하고 있다	93	29.8%	187	59.2%	280	44.6%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	16	5.1%	13	4.1%	29	4.6%
계	312	100%	316	100%	628	100%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준비는 ‘준비를 하고 있다’ 44.6%,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 34.2%의 순서로 응답이 나왔다.

1학년과 2학년의 준비 수준의 차이가 있었는데 < 표 III-1 >에서와 같이 저학년 일때 보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다음의 진로에 대한 걱정과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의 진로 상황

학생들이 생각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진로지도에 관한 설문은 다음과 같다.

< 표 IV-11 >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로지도의 만족도

구분	1학년		2학년		계	
	M	%	M	%	M	%
매우 만족한다	57	18.3%	60	19.0%	117	18.6%
만족한다	135	43.3%	162	51.3%	297	47.3%
보통이다	75	24.0%	86	27.2%	161	25.6%
불만이다	44	14.1%	8	2.5%	52	8.3%
매우 불만이다	1	0.3%	0	0.0%	1	0.2%
계	312	100%	316	100%	628	100%

학생들이 생각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 47.3%의 수준을 나타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취업관련 기업체나 기업체 현장탐방 등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경험의 기회를 부여해서 학생들에게 취업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대학으로의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 못하다.

다음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어느 분야에 진로교육을 중점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문이다

< 표 IV-12>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의 진로 분야

구분	1학년		2학년		계	
	M	%	M	%	M	%
취업 지도	19	6.1%	35	11.1%	54	8.6%
진학 지도	14	4.5%	16	5.1%	30	4.8%
인성 지도	9	2.9%	2	0.6%	11	1.8%
진학 취업 병행지도	270	86.5%	263	83.2%	533	84.9%
계	312	100%	316	100%	628	100%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진학 취업 병행지도’ 86.5%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취업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지만 대학 진학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고, 학생마다 여러 가지 진로의 길을 알려주어야 한다.

진학과 취업의 병행지도를 했을 경우 학교내에서 진학반과 취업반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설문이다.

< 표 IV-14>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취업반 진학반 분리 운영

구분	1학년		2학년		계	
	M	%	M	%	M	%
전혀 그렇지 않다	3	1.0%	2	0.6%	5	0.8%
그렇지 않다	13	4.2%	10	3.2%	23	3.7%
보통이다	53	17.0%	41	13.0%	94	15.0%
그렇다	237	76.0%	258	81.6%	495	78.8%
매우 그렇다	6	1.9%	5	1.6%	11	1.8%
계	312	100%	316	100%	628	100%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취업반과 진학반의 분리 운영에 대한 설문에는 ‘그렇다’ 78.8%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특성상 공업 전문 교과목을 배우지만, 과목을 배우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달라진다. 학교에서는 취업과 진학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취업반과 진학반의 구분 없이 한 반에서 학생들이 서로 수업 받는 경우가 많다. 대학진학을 위한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과 연계되는 과목을 가르치는 등의 진학반 수업 방식이 필요하다.

제5장 분석

설문을 진행한 결과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중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을 결정하게 된 시기는 대체로 ‘중학교3학년(62.2%)’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인생의 갈림길에 놓일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중학교 3학년 때인 1년이라는 시간에 결정하는 것은 후에 많은 문제점들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결정한 요인이 ‘스스로 결정(53.5%)’은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과의 충분한 상의가 아닌 본인의 성적 때문에 결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학생의 흥미, 적성, 장래 희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결정이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여 산업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관인데, 특성화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산업의 인재가 아닌 성적에 쫓겨 결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결정한 학생들은 < 표 III-3>과 같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잘 알지 못하고 지원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들은 성적에 쫓겨 진학을 결정하게 되어 공업고등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진학을 한다. 이러한 결과는 < 표 III-4>와 같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결과를 나타낸다.

중학교 때부터 학생들에게 진로 지도를 함으로서 학생들의 흥미, 특성, 장래희망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진학을 권유하는 것이 좋고,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잘 알고 진학할 수 있도록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에 대한 진로 지도가 필요하다.

둘 째,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유 중 ‘취업 전망이 좋아서(59.1%)’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중학생에서 고등학교에 막 진학한 경우에는 < 표 III-4>와 같이 전체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특성화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들은 ‘취업 전망이 좋아서(59.1%)’의 만족도를 보였다. 현재 사회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학생들과 가정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취업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

생들의 만족도에 맞게 많은 기업체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열어 줘야한다.

셋 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보는 시선은 아직까지 좋지 못하다. < 표 III-6>와 같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한 1학년 학생들은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41.0%)’라는 응답을 하였다. 2학년으로 진학하면서 ‘기능인으로 높이 인정(52.2%)’라는 인식이 강해지지만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32.3%)’라는 응답률처럼 아직은 외부의 시선이 좋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특성화 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등학교라는 전문학교로 변화되면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많은 홍보를 통해 학업 성적에 쫓겨 진학한 것이 아닌 학생 스스로가 흥미와 장래를 위해 진학을 하였고 열심히 학업에 집중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

넷 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 후의 진로는 ‘취업(81.4%)’로 나타났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지인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의 목적에 맞게 학생들의 ‘취업’을 진로로 희망했다. 두 번째 응답률로는 ‘대학진학(15.9%)’가 나왔는데 대학진학은 1학년과 2학년의 응답률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1학년때의 대학진학 응답률이 2학년의 응답률보다 다소 높게 나왔는데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67.2%)’의 이유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2학년 학생들은 대학진학보다 취업 선택 비중을 높였는데 이는 대학 진학을 하더라도 취업이 불확실한 현 사회의 모습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지원하는 안정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 째,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 선택 시 가장 영향을 받는 요인들로는 < 표 III-8> 같이 ‘부모 형제(36.1%)’, ‘학교 선생님(34.1%)’, ‘본인 스스로(23.9%)’의 순서로 나타났다. < 표 III-2>와 같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 할때와는 다르게 고

등학교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결정보다는 주위의 도움인 ‘부모 형제’, ‘학교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 표 III-9>와 같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편이다(37.7%)’라는 응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릴때 주위의 조언들이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그에 맞게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학생들에게 진로지도를 통해 학생의 진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여섯 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준비를 하는 정도는 < 표 III-10>와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44.6%)’로 나타난다. 그러나 2학년의 응답률(59.2%)보다 1학년의 응답률(29.8%)이 낮은 모습을 보였는데 1학년보다 2학년이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지도의 만족도는 < 표 III-11>와 같이 ‘만족한다(47.3%)’라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 표 III-7>와 같이 대부분이 취업에 관한 진도지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진학을 목표로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 못하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진학에 좀 더 관심이 두어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일곱 째,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취업반과 진학반을 분리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본 설문지에서는 취업반 진학반 분리 운영을 ‘그렇다(78.8%)’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과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나뉘기 때문이다. 취업반과 진학반을 목표로 두고 있는 학생들은 현재 한반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취업반과 진학반을 나누어 취업반은 취업에 적합한 실습위주의 수업을 진학반은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수업을 통해 대학에서도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제6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 지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효율적인 진로 지도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현재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는 취업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다른 진로(진학 등)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채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몇 가지의 방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학생들의 조기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현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공부에 흥미가 없거나, 중학교 때의 학업 성적에 맞춰 진학한 학생들이 대다수이다. 학업 성적에 맞춰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수업이나 실습에 흥미가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도태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중학교 때 학생들의 흥미, 특기 등을 살리지 못하고 성적에 따라 학교를 정하는 방법에서 나온 문제이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생들에게만 진로상담을 통해 진학을 결정하지 말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진로지도, 상담 등을 통해 학생이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흥미, 특기를 살려 그에 맞는 진로를 조언해주는 것이 좋다. 실제로 특성화고등학교 목적에 맞게 흥미를 가진 학생들의 진학을 통해 기술 과정의 전문성을 두고 학생들을 잘 가르쳐 기술 장인으로 나아가게끔 도와주어야 한다.

둘 째, 특성화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진학과 취업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의 진로 지도와는 달리 특성화 고등학교를 위한 전문적인 진로 상담이 필요하다. 일반 고등학교는 대학으로의 진학이 최우선시 되어 그에 맞는 학생들의 진학상담을 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취업과 진학의 희망을 조사하여 그에 맞는 진로 지도를 해야 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산업체에서 필요해하는 기술과 사회에서의 적응력 등을 미리 경험하고 습득함으로써 산업체에 취업했을 때 학생이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대학으로의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대학 수업(고등교육)의 기초를 고등학교 수업에 접목시켜 대학으

로 진학 시 다른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줄여 대학 수업에 잘 적응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들은 대학의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뒤처지는데, 이것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왔다는 짐작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진학한 학생들이 다른 일반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에 비해 수업에 적응을 하기 힘들어 한다. 대학은 특성화 고등학교와의 연계과정을 통해 진학을 원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의 교육 기초를 습득하게 하거나,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과목 중에 학점을 인정하는 등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이점이 있어야 한다.

셋 째, 특성화 고등학교를 바라보는 외부적인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 공업 고등학교가 2011년도부터 통합되어 특성화 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어 불리고 있지만 아직도 외부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좋지 않다. 사회에서 고학력을 요구하면서 학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특성화 고등학교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봤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쉽게 되지 않는 취업난이 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해 안정적인 취업을 노리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이에 맞게 국가에서도 지속적인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학교의 질이 높아져 가고 있다. 또한,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전문 기술 장인을 육성하는 등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변해가고 있다. 2014년도 졸업자 125,017명 중 약 44%인 54,953명이 취업 하는 등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특성화 고등학교는 ‘공부에 흥미 없는 학생’이 진학하는 학교가 아닌 학생 본인의 성향에 맞게 진학을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넷 째,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진학률보다 취업률이 앞서고,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신설되는 등 학생들의 기술 수준은 향상되고 있고 상향평준화 되고 있다. 이에 맞게 산업체에서는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거나 다른 취업생들과 차별하지 않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2+1’체제로 취업을 나간 학생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산업체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국가의 지원을 받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산업체의 경우 학생들이 취업생이라고 여겨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지 않고 산업체의 근로자로서의 대우를 해주어야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취업 나가는 산업체의 정보를 세세하게 준비 하는 등 학생들의 취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 째, 상당수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추천해주는 산업체에 취업 나가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는 좋은 산업체가 있을 경우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세워 높은 성적을 보여주는 학생에게는 월급이 많은 산업체, 낮은 학생에게는 월급이 적은 산업체를 소개시켜 준다. 학생들은 같은 과에서 같은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분야가 있다. 단순 작업을 원하는 학생이 있고, 하나의 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하는 등 복잡한 작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성적 순서대로 산업체에 취업 보내는 것보다 학생의 성향이나 가정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상담한 후에 진로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김충기.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서울 : 배영사, 1986.
 _____. 『직업교육과 진로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1987.
 _____.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 서울 : 양서원, 1995.
- [2] 이무근. 『직업교육학 원론』. 교육과학사.
- [3] 박성수. 『생활지도』. 서울 : 정민사, 1986.
- [4] 정영철. 『실업계고등학교의 진로선택』. 서울 : 대한교육연합회, 1995.
- [5] 이정근. 『진로지도와 진로상담』. 서울 : 중앙적성연구소, 1980.
- [6] 장석민. 『진로교육의 개념과 중요성』. 서울 : 새교육, 1986.
- [7] 김신일.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2009.
- [8] 김종우 등. “마이스터고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및 성과 평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9] 김상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 현황 및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10] 이규승.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지도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 [11] 김경용.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 요인과 희망수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1998
- [12] 정진일.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지도방안 모색을 위한 진로의식 분석”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3
- [13] 주종근. “공업계고등학교 진로지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 [14] 채민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태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 [15] 최강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가치관 및 진로의식에 관한 연

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16] 정윤경 등. “공업계고등학교와 공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의식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7] 정철영. "진로교육의 이론과 개선방향", 『진로교육정보』, (1993. 가을 호). 『』

_____. "다양화 사회에 대비한 학교의 진로교육", 『'94 진로교육 세미나』, (1994. 경기도교육청).

[18] 나현미. “2011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공업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시안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 박동열.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 및 현황 조사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설문지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를 위한 효율적 교육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작성된 설문지입니다.

본 연구 결과는 순수한 학문적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본 설문 내용에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월 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전기전자통신교육 : 손기봉 드림

※ 다음은 응답자에 대한 통계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 안에 V표를 해 주십시오.

1. 학생은 현재 몇 학년입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2.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 다음은 진로 선택 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 여러분의 생각에 일치되는 사항의 해당번호에 V표를 해 주십시오

1. 학생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한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 ① 중학교 1학년 ② 중학교 2학년 ③ 중학교 3학년

2. 학생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원할 당시에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지원했습니까?

- ① 잘 알고 지원 ② 대충 알고 지원
③ 잘 알지 못하고 지원 ④ 전혀 모르고 지원

7. 학생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진학한 것에 만족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충 수업을 안해서
- ② 취업 전망이 좋아서
- ③ 자신의 적성에 맞아서
- ④ 대학진학 때문에

8. 학생은 현재 배우고 있는 전공교과에 대한 만족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만족
- ② 약간 만족
- ③ 보통
- ④ 약간 불만족
- ⑤ 매우 불만족

9.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능인으로 높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 ② 일반계 고등학교 정도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 ③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 ④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 ⑤ 잘 모르겠다

10. 고등학교 졸업 후 학생은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십니까?

- ① 취업(설문11번으로)
- ② 대학진학(설문12번으로)
- ③ 개인 사업
- ④ 가사 도움

- ① 매우 고민한다 ② 고민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④ 고민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

16. 학생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직업관은 무엇입니까?

- 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자기 직업은 천직이라는 의식이 필요하다
- ② 직업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다
- ③ 직업 호라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한다
- ④ 직업은 물질적 보수를 취득하는 수단이다
- ⑤ 직업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결정한다

17.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직장에 충실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② 성공할 수 있다
- ③ 어느정도가능하다 ④ 성공하기 어렵다 ⑤ 성공할 수 없다

18. 장래 직업을 선택할 때 어느것이 가장 중요시 됩니까?

- ① 월급 ② 근로 환경
- ③ 직업의 안정성 ④ 흥미와 적성 ⑤ 기타

19. 직업 선택 시 영향을 많이 받는것은 무엇입니까?

- ① 선생님
- ② 부모님
- ③ 친구 선배
- ④ 진로상담사
- ⑤ 광고매체

20. 부모님이 학생에게 기대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회사원
- ② 자영업
- ③ 공무원
- ④ 전문기술직
- ⑤ 기타

21. 희망하는 장래 진로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 ②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 ③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
- ④ 준비를 하고 있다
- ⑤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

22.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로지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불만이다
- ⑤ 매우 불만이다

